

# 建築士의 使命

金正澈

(주) 정립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 —우리의 姿勢와 役割—

建築은 옛날에도 있었고 오늘날에도 이루어지고 있다. 風雨와 맹수를 피하는 동굴이나 움막에서 시작하여 역사에 길이 남는 문화적 유산들과 巨大하고 첨단적인 기술이 반영된 現代的 產物에 이르기까지 허다하게 세워지고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의 생활을 담고 環境을 造成하는 이러한 것의 대부분이 우리 건축사의 손에 의하여 설계되고 만들어져 지상에 세워진다. 이런 시설물들은 粗惡한 것이건 쓰기에 불편한 것이건 일단 세워지면 마음대로 없애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건축사에게 맡겨진 임무는 막중하다. 좋은 건축, 훌륭한 건축 더 나아가서 문화적 유산으로 남을 결정을 많이 만들어 후세에까지 남기고 전해야 하는 책임 또한 따른다.

건축은 다른 예술분야와는 달리 모든일이 건축사의 요청이 있어야 설계작업이 시작되고 그 案이 받아들여져야만 施工이란 과정을 거쳐 사용하게 된다. 自意的인 작품활동이거나 자기만이 인정하는 설계는 지상의 한낱 그림으로 그칠 수밖에 없다. 건축의 폭 넓은 기초지식을 터득하고 이론을 연마하여 깊은 전문성을 지니고 또한 많은 경험을 쌓아야지만 좋은 건축을 실현할 수 있다. 끝도 없고 한정도 없는 藝術과 技術의 분야에서 개성과 취향이 다른 많은 사용자의 요구에 대해 명답을 내야하는 건축사는 정말 천재성과 비범성을 지녀야 한다.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實質이며 專門性인 것이다. 현대사회는 분명히 전문화 시대라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전문성이 얼마나 존중되고 있는지는 의문스럽다. 博士는 찾으면서도 전문가로서는 외면당하는 사회가 아닌가. 박사는 하나의 형식 요건이지 영역이 지켜지고 존중되지는 않고 있다. 중국에서는 박사를 淵을 박(博)으로 쓰지 않고 오로지 전(專)인 專師라 호칭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사회는 전문가가 존중받는

사회가 아닐런지. 우리도 전문인으로서의 위치를 다지기 위해서는 우선 훌륭한 자질을 갖추어 기술이 풍부한 건축사가 되어야 하겠고 또한 올바른 建築意志를 가진 건축주를 만나 텔런트를 발휘할 수 있는 사회여건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質營理가 된 시공이 이루어지고 좋은 관리자나 사용자가 올바르게 써 줄때 우리의 노력이 담겨진 작품이 건축으로서 역할을 하게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건축사는 이러한 제반 여건을 갖출 수 있는 건축풍토, 환경을 만들도록 부단한 노력을 해야한다.

## —좋은 建築, 훌륭한 作品—

사회는 수요공급의 법칙이 지배적으로 작용한다. 좋은 건축, 훌륭한 작품이 되려면 사명감 있는 건축사의 자질이 중요하고 건축을 이해하는 건축주가 있어 충분한 시간과 필요한 뒷받침을 해주어야 한다. 전국에서 활약하는 2천6백여명의 건축사는 일본에 비하면 인구비로나 사회적으로 보아 아직 과다한 편이 아니라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건축사법상의 보호는 물론 發注方式에 있어서도 아직 일본보다는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문제는 우리들 자신의 양식과 가치적 판단에 달려 있지 않나 생각된다. 모든 건축사는 올바른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의 일을 수임하도록 해야 한다. 설계를 많이 하는것이 능사가 아니라 자기 기량과 충분한 노력을 다해 수준높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설계비, 설계기간이 충분히 주어지는 좋은 프로젝트가 만나야 한다. 건축사에게는 우리의 모든 Client들이 건축을 사랑하고 이해하며 건축이 단순한 조형물이 아닌 문화적 유산이라는 생각을 가지도록 선도해 나가야 할 책임과 의무가 요구된다. 이런 마당에 과당 경쟁이란 있어서는 안된다. 현행 설계비 자체가 선진국의 設計株價와는 비할 수 없을 정도로 낮는데 건축사끼리 수주경쟁으로 규정된 효율도 못받는

현실에서 어떤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는 자명한 일이다. 더 많은 고민과 전문성에 입각한 설계작업이 이루어져야만 훌륭하고 가치있는 설계내용이 되고 건물이 아닌 예술적이고 기술집약적인 건축을 이룰 수 있다. 설계내용의 작업량에는 한계가 없다. 너무 많은 작업을 한 설계는 덤핑이 아니냐며 자책하고 작업량에 따라 설계비를 더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어떤 외국 건축가의 이야기를 상기하게 된다.

## —品位 보존과 사회적 지위—

우리의 작업은 思索를 통한 知的인 작업이 된 때 진정한 의의와 메시지(Message)가 담겨 있는 공간이 되고 생활의 가치가 창출되는 건축이 된다. 건축이 한낱 매스(Mass)만이 아닐진대 셸터(Shelter)안에 새로운 행위와 생활이 창출되고 인관관계가 원활해지고 살아 숨쉬는 미래로 연결되는 생산적 장이 되어야 한다. 건축은 개체만으로 존재할 수 없다. 아름답고 조화된 도시를 형성해야 한다. 그곳을 지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視覺的으로 안도감과 평안함을 주어야 하며 시민들에게 친근감을 주는 도시공간들을 제공하여 지역적 내지는 도시적 기여를 하는 그곳의 자량이 되어 세월과 더불어 살아남는 환경이 되어야 한다. 건축은 도시적 사회적 조형내지 공간이다. 그러므로 높은 의미에서 수요자라는 사회이며 이용자는 시민들인 것이다. 건축주는 불특정 기간동안의 소유주가 되는 것이다. 건축주는 자기의 재산을 투자하여 사회의 요구, 이용자들을 위하여 건축사의 전문적 활동의 도움으로 시설물을 만들어 그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건축주는 독선이나 개인적 취향이 너무 강조되거나 우선이 될 수 만은 없다. 건축사는 건축주의 올바른 요구를 해결하고 깨닫지 못한 건축의 사회성을 인지시키고 지역에서의 기여를 계도하여 기쁨을 맛보게 해 주었을 때 우리의 사명과 책임을 다한것이며 여러 건축주 나아가서는 사회로부터 존경과 대우를 받게 된다고 확신한다. 건축사의 활동이 사회적으로 보다 폭넓은 활약이 될때 우리의 권익이 보호되고 사회적 지위도 높아 지고 보람있는 창작생활을 할 수 있다. 올림픽을 앞둔 이 시점에서, 스포츠에 따른 에너지만 發散 誇示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의 활동 즉, 지적 활동분야에서 보다 높은 문화적 자질을 함양하고 서로 양보 협동함으로써 훌륭한 건축과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어내는 전문인들로서 높이 평가받는 건축사가 될 것을 기대해 본다.